전남 동부지역본부 조직 개편…동부·서부 도의원 모두 반발

1본부 3국 320명 확대안
서부권 "균형발전 외면·눈치보기"
동부권 "활성화 없는 숫자 맞추기"
동부·서부 소지역주의 작용 '우려'

전남도가 오는 7월 개청을 앞두고 마련한 동부지역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확대하는 조직 개편안과 관련, 도의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동부권 일대 산업 특성을 반영한 조치라는 전남도 입장과 달리, '숫자 맞추기식' 조직 개편, '동부권 눈치보기식 개편'이라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동부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동부권 개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담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이어 서부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균형발전을 외면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칫 동·서부권으로 나뉘어 소지역주의가 작용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목포·무안지역 도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남도의 동부지역본부 조직 개편안을 '지역 간 균형발전을 외면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저버린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전남도청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등으로 경제적 우위를 점한 동부권과 낙후된 서부권에 행정중심단지를 만들어 동·서간 경제적 균형추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고 언급한 뒤 "도청이 무안으로 이전하면서 동부권에 여수해양엑스포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유치를 지원결정, 현재 동부권은 약 15조 원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30조 원에 가까운 민간투자 유치가 이뤄져 전남지역 내 압도적 경제력 우위를 점하게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면, 계획인구 15만 명으로 조성한 남악·오룡은 인구 6만 명에도 미치지 못한 채 행정기관 이전으로 인한 균형발전의 효과는 미미하고 서부권의 경제력은 갈수록 추락하는 상황"이라며 "또다시 균형발전을 무시한 채 행정인력과 실·국을 옮긴다면, 균형발전을 내걸고 추진하는 정부 행정기관 유치 요구에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냐"고 반문했다.

의원들은 또 "전남도청은 각 분야 중요 프로젝트 관련 실·국이 함께 모여 정책을 조율하고 협의하는 정책지원업무 담당 기관으로, 각 시·군과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특정 실·국이 분리 운영된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냐"고 우려했다.

목포·무안을 지역구로 둔 도의원들은 "지역 이기주의 시각을 벗어나 진정으로 전남을 위한 길에 심사숙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달 민선 8기 1주년에 맞춰 기존 1국(환경산림국) 6과 24팀 154명이던 동부지역본부를 1본부 3국(일자리투자유치국·문화산림휴양국·환경관리국) 1관 11과 51팀 320명으로 확대 개편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 입법 예고를 한 상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우즈벡 신재생에너지 우호 교류 협약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6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시티팔레스 호텔에서 '전남도-우즈베키스탄 타스켄트·호레즘 신재생에너지 우호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나즈마딘 샤리포프 타슈켄트 부주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무르드아칠로프 호레즘 부지사.) <전남도제공>

사용 편해진 공유자전거 '타랑께'

광주시, 로그인 간소화·간편결제 추가…내년부터 구간 확대

광주시가 무인 공유자전거 '타랑께'의 회원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간편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광주시는 7일 "기존 타랑께 앱 및 홈페이지의 사용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추진됐던 '타랑께 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타랑께 이용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회원가입 절차부터 간소화했다. 회원 가입시 아이디(ID), 비밀번호, 전자우편 주소, 거주지 주소 등을 입력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휴대전화 인증 및 생년월일, 성별 입력만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 확인 로그인 방식도 간편해졌다. 기존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 외에도 휴대전화 본인확인 문자 인증만으로도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결제방식도 기존 카드결제 외에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등을 추가했다. 카드결제 때 최초 입력한 카드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돼 매번 번거롭게 카드 정보를 입력해야 했던 불편함도 해소했다.

백남인 광주시 도로과장은 "시스템 개선을 통해 더욱 편리해진 타랑께 앱이 이용량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내년부터는 더 많은 시민이 타랑께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타랑께 운영 규모와 구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무인 공유자전거 타랑께는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상무지구, 동천동, 광천동 일원에서 이용할 수 있다. 타랑께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과 이용권을 결제한 뒤,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농식품 수출 통로 '국제농업박람회'

수출상담회 개최 협약…1000만달러 이상 구매자 발굴 나서

2023 국제농업박람회가 전남 농·식품 산업의 해외 수출 판로를 구축하는 통로가 될 전망이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은 최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2023 국제농업박람회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개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광주전남지원단은 국제적 유통망을 보유한 연 매출 1억 달러 이상 구매자 또는 연 매출 1000만 달러 이상 유력 구매자 발굴에 적극 나서게 된다.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도 수출 상담회장 구성, 수출 제품 전시 등을 추진해 수출 비즈니스 사업 성과를 창출한다.

사무국은 오는 10월 12일부터 2일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는 '2023 국제농업박람회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를 통해 농기자재·농식품 생산업체와 해외 구매자를 연결함으로써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등 국제농업박람회를 비즈니스 장으로 이끌 방침이다.

전남국제농업박람회는 2019년부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국내 유망 비즈니스 전시회로 선정됐다. 올해도 해외 구매자 유치 및 수출지원 협력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손을 맞잡고 성과를 낸다는 목표다.

올해로 6회째인 국제농업박람회에는 코로나19로 방한하지 못했던 국제 구매자들이 대거 방문할 예정이어서 지역 농·식품 산업의 수출 성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남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국제농업박람회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약을 통해 비즈니스 산업박람회로 거듭나는 성공적 박람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 국제농업박람회는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를 주제로 오는 10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지하철 2호선 3단계, BRT 연계 고려"

강기정 시장, 시정 질문 답변…백운광장~건국동 10.3km

경제적·정책성 타당성 등을 이유로 착공 여부가 불확실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3단계를 도심 BRT(간선급행버스체제)와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4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임미란(민주·남구2)의원의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개통 여부를 묻는 시정 질문 답변을 통해 "3단계 구간의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BRT 노선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정부는 2호선 개통 후 3단계 건설을 검토하라는 입장이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며 "재정수요와 경제성, 사업 가능성 등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이날 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3단계 구간에 대한 광주시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일시 정지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에 3단계 구간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2026년 착공해 2031년 개통될 백운광장~북구 건국동 광주희망병원 구간(10.3km)의 도심 BRT와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구간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2호선 3단계는 백운광장에서 진월동 효천역까지 4.84km 구간으로, 광주시는 백운광장에서 BRT와 연계하면 경제성과 시민이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광역도시 최초 순환선으로 2조 8772억원을 들여 3단계로 진행 중이다.

사업 규모는 총길이 41.9㎞로 1단계는 2026년, 2단계는 2029년 개통될 예정이다. 1단계 구간은 시청~상무역~금호지구~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남광주역~조선대~광주역을 잇는 17.06㎞, 2단계는 광주역~전남대~일곡지구~본촌~첨단지구~수완지구~운남지구~시청 20㎞ 구간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우즈베키스탄 에너지 신산업 협력 확대

전남도가 우즈베키스탄과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할 전망이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6일(현지 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청에서 조이르 미르자에프 타슈켄트 주지사, 코피아(KOPIA) 우즈베키스탄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날 협정으로 전남도가 우즈베키스탄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농업 정밀관수 시범사업에 대한 수원국(원조를 받는 나라) 동의서 전달식이 이뤄져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전남도는 다음 달 있을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모사업에 '타슈켄트 지역 스마트농업 정밀관수 시범사업'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아울러 의향서 체결에 따라 경제·통상, 문화, 관광, 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71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님의 약속입니다"

간호사 단독개원과 무관합니다

- 간호법에 '지역사회'가 들어있어 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고, 의사의 업무인 진료 영역을 침범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완전히 날조된 가짜뉴스입니다.
- 의료법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지만, 간호사는 개설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근거 없는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간호법에 의한 간호사의 단독개원은 '안 된다'고 명확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2022.02.10.).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제한해 차별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 고졸 취업을 확대·유도하는 정책 기조에 맞고 직무 수준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 고졸 적합 업무인 간호조무사는 현행대로 직업계고 및 민간 학원 등에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교육부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청년의사, 2023.4.21. 기사).
-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 평생교육시설, 간호학원, 간호대학 과정 등의 이수자가 시험을 거쳐 자격취득이 가능하므로 고졸자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10명중 6명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간호조무사협회 '2021년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간호인력을 위한 상생법안입니다.

절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지 않습니다

- 현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업무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것은 병원의 경영자이자 병원장인 의사가 불법적으로 타 직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간호사에게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 간호사는 업무상 위계에 따라 사직을 하지 않는 이상 병원장이나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기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간호사의 구급·응급 업무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근거에 의해 수행하는 것이며 간호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대한간호협회, 대한조산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미래소비자행동,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권익포럼,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한국종교인대화회포럼, 국제라이온스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신장애인권연대, 청년디딤돌, 인분사회연구소, 국제다문화연구소,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백년어서원,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 대한수의사회여성위원회, 부산작가회, 부산인문연대, 부산민예총, 대전치과위생사협회, 울산술사랑운동본부, 강원도어류작가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전북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 부산영화영상산업협회, 생애말기돌봄연구소, (사)대한노인회 아산지회 등 1,300여 단체(무순)